

# 제6회 광주비엔날레 불교에 꽃히다

## 9월 8일 개막... 불교 소재 작품 다수 전시

9월 8일 개막하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전시된다.

가장 주목 받을 작품 중 하나는 한국계 미국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의 '반가사유상'을 이용한 비디오 설치작업. 이 작품은 불상 주변에 여러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상의 각 부위를 조각난 파편처럼 보여줌과 작가 자신의 전통적 뿌리와 대화를 시도한다.

미국작가 데이빗 하몬스(David Hammons)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두 브론즈 불상을 서로 마주하도록 배치한 설치작품이다. 두 불상의 합장한 손끝에는 하나의 긴 줄이 연결되어 있고 한 가운데 안전핀이 매달려 있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학적 결단을 보여준다.

타이완 출신의 슈민 린(Shu-min Lin)은 '내공 1'이란 작품에서 동양의 선(禪)과 불교사상을 뉴미디어를 통해 표현한다. 갤러리 바닥에 영상으로 투사된 연꽃을 만들고, 관객은 헤드폰을 끼고 앉아 뇌파활동에 의해 변하는 이미지를 보도록 한다.

중국어 출신 장 후안은 작품 '평화'를 통해 퍼포먼스, 조각, 설치를 아우르는 복합예술을 선보인다. 범종 목재에 조상의 이름을 새긴 뒤, 자신의 몸을 뜯 브론즈 조각으로 종을 지도로 한다. 타종을 통해 평화를 의지는 퍼포먼스에 관객도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 출신 딘 큐 데(Dinh Q. Le)는 '머리없는 불상'으로 베트남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관객을 위한 공연 행사에 불교사물과 선무공연단이 출연해 불교문화와 대중의 한마당 무대를 펼친다.

광주비엔날레 최수연 전시 코디네이터는 "금번 비엔날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미술 문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한국과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라며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는 다수의 불교 소재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진은 이번엔 소개되는 불교작품 중 하나인 타이완 작가 슈민 린의 '내공 1'.

"동양 문화의 핵심인 불교관련 작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광주 비엔날레는 11월 11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계속된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gb.or.kr)를 참고하면 된다. (062)608-4114 이준엽 기자

###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진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이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세 번째 논강이 8월 25일 '정진 바라밀'을 주제로 200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이호근 법사(사진·前 광주전남 교사불자회장)는 "다양한 수행방법이 있지만, 스님·재가자를 가릴 것 없이 보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쉬지 않고 한 걸음이 나아가는 정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주 이호근 법사는 주제발표에 앞서 논강 참여 대중에게 협장을 하도록 했다. 이 법사는 서로 맞닿은 손바닥의 느낌에 대해 "내 마음이 손바닥에 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며 "아저림 마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순간순간 지키는 것이 정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사는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라. 지혜있는 자의 정진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요, 어리석은 자의 계몽은 죽음에 이르며 가난한 자의 길이다"는 부처님 열반송을 상기시키고 "출가한 수행자들만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도 세속에 살면서 마음속의 속박과 장애를 이기고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의 응답

▲재가자가 공부하는데 있어 사찰이나 선지식마다 가르치는 수행 방법이 달라 혼란스럽다. 어떤 수행법으로 정진해야 하나.

- 부처님은 수행에 있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의 극단적인 것을 경계했다. 정진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지키는 것이다.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수행을 통해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랬을 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된다.

▲집에서 불상을 모시고 정진하고자 한다. 불상을 모시면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조선시대 역불정척에서 나온 오해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집집마다 불단을 마련했다. 집에 불상을 모시는 것은 '불교 생활화'의 첫걸음이다. 몇 년 전 열반에 드신 청화 스님은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자기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을 초청하여 집안을 한 뒤 정갈한 곳에 모시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정진이 여의치 않으면 사찰에서 열리는 수계식이나 큰 법회 때 불단에 모셔 집안을 대신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려=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지혜' 일시: 9월 8일(오후 7시) 논주: 이희재 교수(광주대)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순간 순간 지켜야 해"

### 사하촌 한국전쟁 희생영가 선운사서 55년만에 천도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스님과 사하촌 주민을 위한 천도제가 55년만에 열린다. 고창 선운사(주지 범)는 9월 30일 내원암 터에서 '삼인리 6·25 희생 영령 천도제'를 봉행한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선운사를 지키던 호명 스님과 삼인리 주민 53명은 북한군에 의해 선운사 내원암에서 희생됐다.

이번 천도제는 주지 범이 스님, 내원암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55년만에 봉행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한편 선운사는 천도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범종각 준공식과 타종식을 봉행한다. 새로 조성된 선운사 범종은 1500만 규모의 대종으로 주철장 원광씨 씨가 제작했다. 선운사는 범종불사를 기념해 저녁 7시 대웅전 앞마당에 특별무대를 마련하고 제3회 산사음악회도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 자비로운 삶... 숭고한 '육신공양'

#### 시신기증 故 위연환 포교사

8월 30일,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옆 추모관에서 조촐한 영결식(사진)이 열렸다. 주인공은 故 위연환 조계종 포교사. 위연환 포교사는 29일 세상을 떠나기 앞서 법구를 전남대 의대에 기증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마저 생략했다. 위포교사의 뜻이 알려지자 광주전남 포교사단이 이날 영결식을 마련한 것. 광주전남 포교사 백남용 단장은 "고인은 병상에서도 고통을 뒤로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탬되는 일만 생각했다"며 "육신기증으로 의학발전과 장례문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추모했다. 또한 친구 근환채 씨도 "고인은 항상 나보다 남을 위



하는 삶을 살았다"며 "지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다"고 애도했다. 故 위연환 포교사는 향년 51세로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며, 광주불교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자격증을 취득, 장엄 봉사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수련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26-27일 양일간 진주지원에서 첫 신도회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너는 나의 빛"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10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 열린음악회, 화엄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련회를 지도한 혜찬 스님은 "처음 열린 신도수련회지만 수행 열기는 뜨거웠다"며 "신도들의 단합과 수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했다. 이준엽 기자

### 보현사·대성사 산사음악회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으로 청주 보현사와 육천 대성사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가을의 향연을 전한다.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불자와 청주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한마당'을 주제로 9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산사음악회를 연다.

청주불교방송과 본사 대전총부지사 주관으로 열리며, 기타리스트 고우밴드와 오영민, 최은혜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가수들이 출연한다. 또 신명예술단은 어린 아픔들과 대북공연으로 흥을 돋을 예정이다. (043)259-4926

육천 대성사(주지 혜월)도 9월 23일 오후 6시30분 산사음악회를 열어 육천군민과 불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와 함께 진행돼 가을산사의 흥취를 돋운다. 티베트 스님들의 뿌자의식으로 시작되는 음악회는 박성식, 이성원, 불교합창단의 공연과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정기 자랑으로 진행된다. (043)732-5560 박복영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총부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 금강선원 병술년 윤칠월 7일 예수재

예수재는 생전에 사후를 위하여 법의 공덕을 미리 쌓는 불교의식입니다. 즉, 사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 역수재(逆修齋)라고도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의식인 것입니다. 금강선원 윤칠월 예수재에 무루 동참하시어 선업을 닦고 업장 소멸하시길 기원합니다.

금강선원 원장 혜거 합장

날 짜	강 의	주 제
입 제	9월 15일(금) 송석구 박사 (前 동국대 총장)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제2일	9월 16일(토) 종호스님 (동국대 선행과 교수)	화두로 돌아보는 진정한 열반의 의미
제3일	9월 17일(일) 이덕진 교수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의식과 문화로 돌아보는 죽음 이야기
제4일	9월 18일(월) 혜거 큰스님 (금강선원 원장)	죽음에서 열반으로
제5일	9월 19일(화) 김형호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서양사상에서의 마음공부
제6일	9월 20일(수) 우희중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생명조작의 현황과 윤리적 입장
회 향	9월 21일(목) 동희스님	예수재 의식집전

### 대한불교 조계종 金剛禪院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문의 : 02)445-8484

##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탄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